

“추경 신속집행... 도정운영 속도 높일 것”

김관영 지사, 국가예산확보 야전 간부회의 개최... 부처단체 국가예산 활동 점검·최종활동 전략 논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26일 간부회의를 국가예산확보 야전회의로 개최하며 예산확보 상황을 진두지휘했다.

그동안 김 지사는 5월 중순부터 매일 아침 행정·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이 참여하는 국가예산확보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예산확보 전략과 실행전략을 수립해 예산확보 상황을 지휘해왔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부처단체 국가

예산 활동을 총 점검하며 최종활동 전략을 논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최선을 다했고, 더 보완해 예산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현재 부처단체에서 우리의 논리가 부족하다고 평가된 사업은 국내 최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활용해서 논리를 보강하고, 예타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그 절차를 신속히 이행토록 해, 기재부 단계와 국회 단계 미진예산 활동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루도록 신발판을 매자”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이번 2회 추경으로 우리 도 집행예산이 1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히며, “시급한 예산을 중심으로 추경이 확보된 만큼 확정된 예산은 신속히 집행해 성과가 나오도록 도정운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6월 1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염원 500만 전북인 결의대회’의 의미를 강조하며, “법 도민의 의지가 결집되고

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김관영 도지사는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개선을 위해 2022년 실적 미흡한 실국은 실국별 청렴도 향상계획을 내실있게 수립 운영하고 청렴 교육 이수, 민원 응대 철저 등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6월 전북으로 ‘여행가는 달’

도, 다양한 할인 혜택·이벤트·프로그램 운영

전라북도가 도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6월 ‘여행가는 달’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과 특별한 이벤트를 관광객을 사로잡는다.

전북도는 ‘여행가는 달’ 특별행사로 숙박할인 기획전과 K-컬처, 농촌, 생활관광 등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특별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시티투어버스·관광택시 할인, 누리소통망(SNS) 여행 인증샷 이벤트 등도 추진한다.

‘숙박 할인 기획전’은 온라인 여행사인 11번가, 야놀자, 여가어때, 웹투어, 인터파크 등에서 7만원을 초과하는 전북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5만원 숙박 할인권을 발급한다. 발급 및 사용기간은 30일부터 6월 1일까지다.

‘특별 여행프로그램’은 주목 받는 여행 테마를 반영해 전북을 맘껏 즐길 수 있는 전북 여행을 제안한다.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에서 운영하는 ‘여행 트렌드관’을 통해 전주·원주의 BTS 따라 느끼는 우리 문화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속으로와 고창 ‘책의 향기가 있는

힐링 쉼드림’, 부안 ‘아름다운 부안 여행길 반려화분 만나 식집사 되어 돌아오는 여행’, 전주 ‘반반한 전주’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전북 자체적으로 특화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북 여행의 매력을 더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익산의 여름관광지와 시골 체험을 할 수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마동의 익산여행’, 김제 역사·문화자원과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한 ‘김제 스테이케이션’, 임실 치즈테마파크와 옥정호를 중심으로 한 ‘임실 여름여행, 풍덩치즈 풍덩옥정호’, 고창의 액티비티 콘텐츠를 활용한 ‘모험하는 사람, 고창을 오르다’ 등이다.

더불어 6월 한 달 동안 완주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고창 고인돌 박물관, 고창읍성은 입장료 무료, 무주 태권도원 입장료 50% 할인, 판소리대안극 ‘동연·서동의 꽃’ 공연 관람료 40% 할인, 전라북도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 매점상품 20% 할인, 김제 시티투어버스 이용료 50% 할인, 남원관광객시 특별 할인 등을 진행한다. /김재훈 기자

노후설계 종합적 정보제공·상담·교육 원스톱 제공

전북도·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 31일 ‘노후준비 컨퍼런스’ 개최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31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노후준비 통합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3 전라북도 노후준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고령화로 인한 노후준비 중요성과 관심은 증대되나,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도민들을 위해 마련했다.

이에 노후설계에 꼭 필요한 재무, 건

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 19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상담, 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강의는 △노후준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노후준비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노후준비 일반’, △‘행복한 노후생활지킴이, 주택연금 바로알기’, △‘노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주제로 각 40분씩 진행된다.

또한, 전라북도 광역노후준비협의체 등 19개 기관이 상담창구를 열고 노후생활 4대 영역(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맞춤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노후준비에 대한 전문성 증진을 위해 나가고자 청년층 대상 국민연금공단취업설명회도 열린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노후준비가 꼭 필요한

만큼, 도민들이 보다 쉽게 노후준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에 맞춰 지난해 6월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를 전라북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했다. 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내 20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광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 ‘최우수상’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이성효)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2023년 제45차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가축전염병·미생물분야 구두발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발표대회에 참가한 전북도는 임상증례, 축산물위생, 가축전염병·미생물 분야로 공모한 연구논문 중 문보미 수의사(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가 ‘전북지역 돼지췌코비리우스 유전자 분석’을 구두발표하고 최종 53편에 포함돼 학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도축돈에서 PRDC관련 질병항체가 조사’ 등 3편의 포스터를 발표했다.

이성효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재난형가축전염병의 방역 등 산적한 현안업무에도 내실있는 현장 밀착형 연구에 정진해 이번 학술발표대회에서 전라북도의 위상을 드높인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가축질병의 진단과 위생적인 축산물 검사에 만전을 기해 도내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전북출신 유명인 3명 홍보대사 위촉

가야금 연주자 이예랑·개그맨 박범·가수 금청씨 임명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더 새로운 전북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전북출신 유명인 3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인 이예랑씨(42)를 비롯해 방송사 공개 개그맨인 박범씨(36), 기업 대표이자 가수로 활동하는 금청씨(64)를 초청해 ‘전라북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야금 연주자이자 국악가수인 이예랑씨는 전주 출신으로 지난 2005년 김해 전국 가야금대회에서 최연소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로 활동중이다.

전주 출신 개그맨 박범씨는 지난 2012년 KBS 21기 공개 개그맨으로 개

그 콘서트를 통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유튜브 채널 ‘뽕송국’ 및 ‘매드몬스터’ 가수 활동, SBS 라디오 컬투쇼 DJ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남원 출신 CEO겸 가수 금청(본명 김성환)씨는 지난 1997년 (주)가보테크를 설립, 2020년 (주)가네마츠 종이컵 제조 회사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연예인으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인물이다.

위촉된 명예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도정 주요 행사 및 다양한 콘텐츠 제작, 해외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전라북도를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세분의 홍보대사들이 전라북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명예 홍보대사 여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인 이예랑씨를 비롯해 방송사 공개 개그맨인 박범씨, 기업 대표이자 가수로 활동하는 금청씨를 초청해 ‘전라북도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개그맨 박범, 김관영도지사,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인 이예랑, 가수 금청)

러분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될 전라북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다중이용시설 대상 테러 예방 합동점검

전북도는 시군·경찰·소방과 6월 30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테러 예방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테러에 취약한 도내 각종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점검 사항은 테러 발생 시 장비·인

력·시설 등의 관리와 훈련·계획 등 대응 태세 전반이다.

도는 실제 테러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검결과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은 현장 확인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